

지역 소식

시리즈 : 2018년 지역 계획에 대한 심층 고찰

성역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단순화하십시오

—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가스히코 야마시타 장로와의 인터뷰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벨슨 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성역은 그것을 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지역 회장단은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성역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역을 통해 개심을 강화하고 복음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지역 비전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 비전 ◆

모두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고, 개심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 지역 우선순위 ◆

1. 복음을 전파하고 개개인의 개심을 강화한다.
2.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일상에서 축복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돕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성역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열렸던 청소년 NYC(일본)와 FSY(한국) 모임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첫째, 많은 청소년이 노력을 기울여 친구들을 모임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저는 간증 모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역입니다.

둘째, 청소년들은 NYC/FSY 모임 동안뿐만 아니라 모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한 회원들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일본 NYC의 모든 모임에서 세미나 횟수를 줄였는데, 그 덕분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서로에게 성역을 베풀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많은 사랑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의 개종을 도왔으며, 그로 인해 자신들의 개심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심이란 분명히 마음의 변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심을 통해 자기 생각, 신념, 행동 및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경험하게 되는 개종의 과정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질문 1. 성역이 무엇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역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역을 베푸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성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그분이 행하신 기적은 모두 성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권고하시면서, 사람들을 강화하고





성역의 세 가지 원리—

영의 인도를 받는다,
탄력적이다,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성역을 베푼다.



* 영화롭게(Magnify)

“Magnify calling”은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로 번역된다. 영어 사용자는 “magnify”라는 단어를 들으면, 돋보기로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권고해 왔다. 한편으로, 지역 계획의 2018년 목표 2.가는 “부담을 덜어 주고 단순화한다”이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권고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시타 장로는 우리가 단순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두 가지를 성취할 수 있으며, “적은 힘을 들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저 자신도 선교사들이 성역을 베풀어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권유한 덕분에 침례를 받았다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선교사들과 우리 회원들이 사랑으로 행해도 자신의 눈이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은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개심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성역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이 왜 성역으로 바뀐니까?

저는 많은 분이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로서 성역을 베풀어 왔음을 알고 있으며, 그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연차 대회에서 하신 다음 말씀을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의 인도와 지시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는 회원들의 영적 및 현세적 필요 사항을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어떻게 더 잘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인도를 구했습니다.”¹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협의하고 기도했으며, 그 결과로 “성역”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프로그램의 변화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역을 베풀고자 하는 노력의 많은 부분이 가정이라는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기 ... 때문입니다.”²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성역을 잘 베풀고 있는지는 방법이나 장소 또는 여러분이 쏟는 시간으로 평가받지 않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돕고, 강화하는지로 헤아려질 것입니다. “성역”은 우리와 회원들이 임무 지명을 받은 가족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인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바입니다.

질문 3. 우리가 어떻게 성역을 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성역에는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성역은 탄력적입니다.** 여러분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성역을 베풀니다.** 성역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성역을 베푸는 형제 자매는 연령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제 세대와 청남 청년들은 다른 방법으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지명받은 가족을 자주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역을 베푸는데 이러한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이고, 우리만의 잣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성급히 비판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에 따라 성역을 베푼다는 점을 이해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 젊은이들은 성역을 베풀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카드”라는 경영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적은 힘을 들여 많은 이익을 얻는다. 2.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한다. 3. 융통성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4. 단순화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과 매우 흡사합니다.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활동을 계획하실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필수적인 요구 사항은 충족시키되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드느라 필수적인 것들이 생취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할 일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단순화하십시오.”³

-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조금 놀랐습니다.

교회 잡지의 질의응답란에 다음 질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영화롭게(Magnify)* 하면서 동시에 할 일을 줄이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름을



지역 계획 및 성역

이 동영상에서 지역 회장단은 지역 계획과 성역과의 관계를 다룬다. 이 기사와 같이 참고하면 여러분이 이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계획 및 성역” 동영상 링크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은 것들을(그리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더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뭔가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더 많이 추가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고(특별히 좋은 것만을 선택하고) 현명하게 행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그 열쇠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까?” 단순화하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신의 위대한 권능을 통해 영감도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으로서의 성역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역의 본질과 정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질문 4. 친절을 베푸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선교 사업)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변 사람들에 대해 순수한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김 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늘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신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도록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쉽게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디어와 생각을

확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일은 줄어들고 간단해집니다. 돋보기는 물체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햇빛을 받아 초점을 맞추면 물체를 태우기도 합니다. 구주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⁴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역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아이어링 회장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역을 베풀 때는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벽을 세운 사람이 우리인듯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벼운 대화 중에 교회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타코를 좋아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이 종종 제게 멕시코 요리를 해 주는데 ...”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힘차게 구하고 두드리라고 격려하시며, 문을 열고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⁵ 청소년들은 입을 열어 친구들을 초대할 용기를 냄으로써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 이상을 넘어서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권유하면 이미 성공한 것”임을 아는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

주

1. 러셀 엠 벨슨 회장, “성역”,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0쪽.
2.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2쪽.
3.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일을 단순화함”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4.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와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은 그녀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 누가복음 10:38~42 참조.
5. 교리와 성약 4:7 참조.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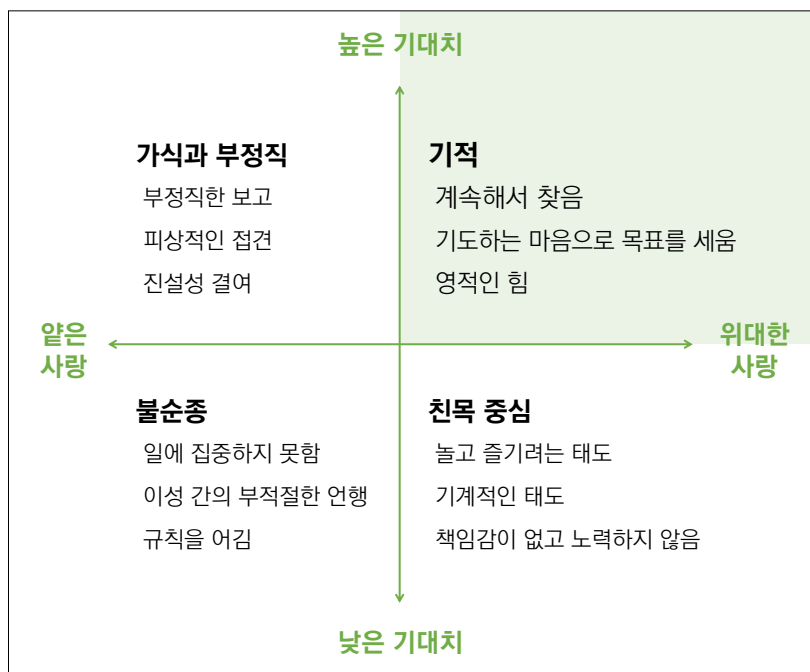
- 영등포 와드 청남 회장단과 청남 이야기

복 아시아 지역 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가족 평의회를 포함한) 평의회와 선교부가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으로 일하게 한다’라는 것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이 무엇이며, 우리가 봉사하는 데 있어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영등포 와드 청남 회장단의 모범을 살펴본다.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의 원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의 말씀에서 비롯한 것이다. 앤더슨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을 지니고 봉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했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기대치의 높이로, 축의 상단으로 갈수록 높은 기대치를, 아래로 갈수록 낮은 기대치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사랑’의 깊이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대한 사랑을, 왼쪽으로 갈수록 얇은 사랑을 나타낸다.

앤더슨 장로는 우측 상단(1사분면)에 제시된 것처럼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을 동시에 지니고 봉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선교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그들의 영적인 힘이 커진다.(2016년 신임 선교부 회장 훈련 모임, 닐 에이 앤더슨 장로)

높은 기대치: 구체적으로 높은 기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칠십인 정원회의 로버트 시 게이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높은 기대치로, 육에 속한 사람 이상의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단히 높은 기대치입니다.” 떨치지 못하는 습관과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높은 기대치, 즉 본성을 변화시키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게이 장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구주께서 가르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 줌으로써”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했다.

위대한 사랑: 게이 장로는 구주께서 지니신 높은 기대치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한 위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사랑이 없이 기대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의무감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우리가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을 지닌다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로버트 시 게이 장로, “지역 계획에 담긴 선지자의 약속과 비전” 참조, 2018년 3월 리아호나 지역 소식)

이는 모든 선교부, 와드와 지부, 신권 및 보조조직, 가정에서도 적용되는 원리다. 선지자의 가르침처럼 각 조직이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일할 때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높은 기대치

장난기 가득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서울 서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의 청년들은 어느 청소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성찬식이 시작되자 그들은 이내 달라졌다. 단정하게 흰 셔츠를 갖춰 입은 3명의 제사가 성찬을 축복하고 여덟 명의 집사 및 교사 정원회 청년들이 270여 명의 회원을 위해 엄숙하고 질서정연하게 성찬을 전달하는 모습에서, ‘힐라맨의 이천 용사와 같은 늠름함이 엿보였다.

2017년 5월 목동, 영등포, 화곡 와드가 하나의 와드로 통합되면서 새로 부름받은 전우식 감독은 무엇보다도 참석자들이 성찬식을 통해 영적인 풍성함을 느끼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판단했다. 전 감독은 이렇게 전한다. “영적인 성찬식을 위해 성찬 의식을 집행하는 청년들은 합당해야 합니다. 와드 통합 후 감독단은 청년들과 한

명씩 접견하면서 매일 경전을 10분씩 읽을 것과 회개를 통해 합당해질 수 있도록 권유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영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 감독이 영적인 합당성과 기초를 닦도록 청년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최웅현 형제는 청년들이 이 중요한 책임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실질적인 면을 도왔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교사 정원회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성찬 빵을 구매합니다. 성찬 빵 구매 전용 체크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청년들이 빵을 사는 것을 잊거나 체크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토의 끝에 카톡방을 통해 서로 상기시켜 주도록 했고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담당자 청년이 잊지 않도록 공지합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성찬식 1시간 전부터 “어디쯤 오고 있냐”, “누가 도착했냐” 등 청년들의 확인 카톡이 오고 간다. 성찬을 준비하는 교사 정원회 청년들은 부모님의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모임 시작 40분 전에 일찍 도착해서 성찬을 준비한다. 제사 정원회 청년들은 필요시 성찬을 준비하는 교사를 돕기 위해 30분가량 일찍 도착한다. 집사 정원회 회장은 모임 시작 10분 전이면 성찬을 전달할 집사들의 역할을 재점검한다. 최 형제는 “여러 차래의 시행착오 끝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성찬을 잘 준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책임감과 서로를 향한 사랑도 자랐습니다.”라고 전하며 청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회장단은 청년을 미래의 신권 지도자로 바라봅니다.”라고 말하는 영등포 와드 청년 회장 정우영 형제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이끄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지침을 근거로 봤을 때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들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집사, 교사 정원회 회장과 제사 정원회 제1보조 형제는 신권회 시간에 단상에 올라가 정원회별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 주의 계획을 발표한 뒤 장로 정원회의 협조를 구한다. 정원회별 분반 시간에는 매주 청년들이 직접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친다. 또한 매달 한 번씩 감독단과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를 열어 상호 향상 모임을 함께 계획하고 저활동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저활동 청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성역에 동참한다.

이희승 형제(18세)는 갓 청년이 되었을 무렵 교회 활동보다는 학교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서 토요일 상호 향상 모임에 종종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받고 봉사하면서 변화된 자신을 발견했다. “학급 회장과 비교했을 때 작은 자리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교사 정원회 회장으로서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교사 및 집사 정원회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상호 향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놀이보다 ‘건강하게’ 놀 수 있었어요. 교회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모임의 중요성을 점점 깨달았습니다.”

정우영 형제에게는 청년들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구절처럼 청년들이 교회 활동을 통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즐거움과 재미를 느낀다면 그 경험이 모든 청년의 가슴에 씨앗으로 심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얻은 교훈을 토대로 결국 훌륭한 성인으로, 신권 소유자로 잘 성장할 것임을 확신합니다.(엘마서 37:35 참조)”

“청년들의 변화는 위대한 사랑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영등포 와드 청년들은 매주 상호 향상 모임을 한다. 회장단 형제들은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어 청년들이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게이 장로가 “사랑이 없이 기대치만 있다면 의무감만 남을 뿐”이라고 지적했듯이, 이들은 의무감이 아닌 사랑을 원동력 삼아 봉사한다. 회장단의 큰 헌신에 관해 청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그분들의 희생에 항상 감동합니다.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시간을 내주십니다.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시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진지하게 조언도 해주세요.”

게이 장로는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으로 일할 때 거둘 수 있는 “두 가지 승리”에 관해 이렇게 가르쳤다. “첫째,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둘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십니다.”

영등포 와드 청년 회장단과 청년들은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으로 일함으로써 게이 장로가 약속한 두 가지 축복을 경험했다. 최웅현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청년 회장단 부름을 수행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하고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변화는 제가 더욱 위대한

사랑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상호 향상 모임으로 성전에서 대리 침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금요일 저녁부터 금식함으로써 대리 침례를 영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금식에 참여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대리 침례 후 함께 기도로서 금식을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 그들을 향해 느낀 사랑과 기쁨의 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청년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변화와 강화된 간증을 볼 때 저 역시 발전할 수 있었고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사 정원회 제1보조로 봉사하고 있는 이승규 형제(19세) 역시 부름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지금까지 와드 통합을 세 번 겪었습니다. 어릴 때는 처음 만난 청년들과의 어색함을 잘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사 정원회 제1보조 부름을 수행하면서 청년들을 한 명씩 알아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일 하면서 우리가 같은 복음 안의 형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색함을 극복하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영등포 와드 청년 회장단이 청년들의 마음에 심은 높은 기대치와 위대한 사랑이라는 씨앗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차 움트고 싹을 틔우고 있다. 이러한 청년 회장단의 영향에 따라,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이다. 영등포 와드 청년들에게서, 구주의 시각으로 다른 이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지니고 구주의 위대한 사랑으로 일하는 미래 신권 지도자들의 모습이 기대된다. ■

광주 헬핑핸즈, 지역 사회의 “누룩”이 되다

주님의 왕국은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믿음과 실천을 함께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면, 절대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2014년 10월 연차 대회

헬핑핸즈의 활발한 봉사는 올 초 평창 올림픽 방문자를 위한 강릉 헬핑핸즈 센터에서 시작되었다. 이 봉사의 열기는 5월 26일 한국 봉사의 날을 기점으로 각 지역으로 전달되었으며, 이제는 지역 헬핑핸즈 센터가 봉사의 중심점이 되어 지역 사회와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지역의 모범 중에서도 광주 헬핑핸즈의 활약이 특히 눈에 띈다. 광주 헬핑핸즈 센터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펼치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광주 헬핑핸즈의 노력을 들여다본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헬핑핸즈 음악 힐링의 밤

지난 7월 28일 저녁, 헬핑핸즈 광주 센터, 즉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헬핑핸즈 음악 힐링의 밤’이 열렸다. 이날 무대는 남성 중창, 시 낭송, 트럼펫 독주, 기타 트리오, 관현악 앙상블, 노래 듀엣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90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특별한 점은 이날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이 대부분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이 지역 내 음악 동아리 및 음악적 소양이 있는 지인들을 다수 초대했다. 이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는 공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음악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광주 헬핑핸즈 실무책임자(총장 지역) 정호근 형제는 “헬핑핸즈를 지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고민하던 중, 음악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의 치유(힐링)에 기여하는 것도 봉사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원들이 주도하는 교회 모임에 비회원을 초대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번에는 비회원들도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장을 더 많이 기획하여 지역 공동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타 트리오 공연에 참여한 허은정 씨는 무대에 오른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기타를 배운 지 오래 되지 않은 제가 관객 앞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공연 기회를 제공해주신 헬핑핸즈에 감사드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교회분들도 악기 하나씩을 배워서 헬핑핸즈 무대에 함께 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있어 동아리 활동 장소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광주 헬핑핸즈는 교회 집회소를 개방함으로써 교회의 문턱을 한층 더 낮추었다. 이날 첫 무대를 장식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 ‘행복 어울림 합창단’은 단원인 총장와드 최중배 형제의 소개로 매주 총장 와드 집회소에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합창단은 이번 음악 힐링의 밤 공연 무대에도 서게 되었다.

합창단 지휘자인 황성철 교수(광주 교육대학교 소속)는 “따뜻하고 청결한 교회 건물에서 매주 연습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차장도 넓고 교회 접근성도 정말 좋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는 성도분들도 늘 친절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측에서 베풀어 준 선의에 보답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광주 헬핑핸즈 3×3 청소년 농구 대회

광주 헬핑핸즈는 생활 체육 분야를 통해서도 지역 사회에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헬핑핸즈 광주 센터 활동실에서 ‘제2회 헬핑핸즈 3×3 청소년 농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2회째를 맞는 이 농구 대회는 3대3 농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내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산을 위해 성사되었다.

그 첫 계기는 2017년 말경, 총장 와드의 청남 정성훈 형제가 친구 여럿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농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지역 청소년들의 농구 활동이 몇 달간 이어지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구 대회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가



HELPING
HANDS
CENTER



나왔다. 2018년 3월 3일, ‘문화상품권 만 원권’을 걸고 농구 대회를 연 것이 ‘헬핑핸즈 3×3 청소년 농구 대회’의 시초가 되었다. 제1회 농구 대회에는 비회원 25명을 포함 52명의 청소년이 총 여덟 개의 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였다.

헬핑핸즈 농구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석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고루 건강해졌다. 정성훈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농구를 1년 가까이 하다 보니 엄청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피시방에 자주 다녀 체력이 약했던 친구들도 농구를 하다 보니 체력이 좋아졌고 게임도 즐기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자주 모여 운동하니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구 하기 전에 교회에서 함께 공부도 해요. 헬핑핸즈 농구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1회 대회 이후 헬핑핸즈 위원회는 ‘농구’를 매개로 지역 사회와 교류하는 방안을 고심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 매주 목요일 ‘헬핑핸즈 농구 교실’을 열고 체력 단련, 기본기 훈련, 수준별 경기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안전을 위해 활동실을 수리, 보수하고 전자 및 수동 점수판과 농구공 수십 개를 추가 구비하는 등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매주 목요일에는 20여 명의 청소년이 꾸준히 농구 교실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들은 토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모인다. 몇몇 청소년은 이 프로그램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농구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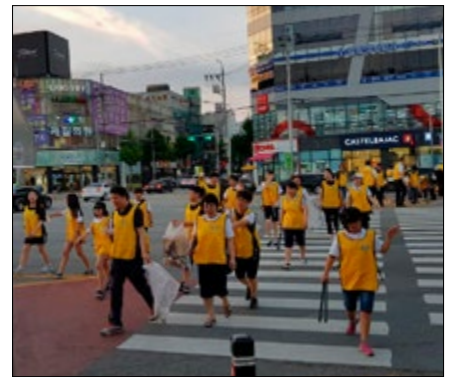
올해 초부터 농구 프로그램에 참석한 광주 서광 중학교 중2 김우진 군 역시 “농구를 통해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귄 수도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라며 참여 소감을 나누었다.

8월 대회에는 중등부(5팀), 고등부(5팀) 총 10팀이 참가했으며 출전한 청소년 총 31명 중 26명이 교회 회원이 아닐 정도로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별 예선전을 통과하고 올라온 각 조의 1, 2위 팀은 치열한 결승 토너먼트 끝에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각기 우승팀을 가렸다. 우승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수여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은 고급 스포츠 양말을 부상으로 받았다. 이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이 심판, 도우미 등으로 나섰으며 3점 슛 넣기 이벤트, 번외 경기인 성인 농구 대항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다.

광주 헬핑핸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농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 코치 배치, 타 스테이크와의 시합, 시, 도 농구 대회 출전, 여학생 농구 교실 개설 등을 구상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한 이들의 끊임없는 고심과 노력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일상에서 펼쳐지는 광주 헬핑핸즈의 지역 사회 봉사

광주 헬핑핸즈는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의 봉사 활동 기회를 자주 마련한다. 지난 8월 18일에는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광주 첨단 지구에서 수완 지구로



이어지는 대로변, 자전거 도로, 산책길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8월 25일에는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총장으로 광주 우체국 앞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벌였다. 두 봉사 활동에도 다수의 비회원들이 참여했다. 광주 스테이크는 '헬핑헨즈'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기 전부터 광주 동구 지역의 불우 이웃 연탄 기증과 배달 봉사, 화순 지역 요양 병원 환자들을 위한 위로 공연 등을 꾸준히 해왔다.

광주 헬핑헨즈는 앞으로 진행할 크고 작은 규모의 모든 봉사 활동을 '헬핑헨즈'라는 타이틀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헬핑헨즈를 알리므로써,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봉사의 기회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헬핑헨즈 센터를 총괄하는 광주 스테이크 오석중 회장은 광주 헬핑헨즈의 저력은 "헬핑헨즈 위원회의 조직적인 노력과 광주 스테이크 성도들의 강한 열정, 소망"에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센터장 아래 부센터장, 운영, 재정, 홍보 책임자와 지역별 실무책임자로 구성되어있다. 위원회는 매달 1회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한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예정된 봉사 활동을 안내하고 활동 사진과 결과물을 올리는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역 사회 내 대표적인 봉사 활동 단체로 자리매김하면서 헬핑헨즈는 광주 서구 자원봉사 센터에 공식 봉사 단체로 인정받고 정식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매 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센터 측에 단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 후 보고를 하면 등록된 참여자에 한하여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수로 달성해야 하는 봉사 시간 이수도 겸하여, 지역 사회 청소년들이 헬핑헨즈 봉사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오석중 센터장은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강릉 헬핑헨즈가 활약했듯이 대대적인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헬핑헨즈가 광주 내 대표적인 지역 사회 봉사단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꾸준히, 다양한 봉사를 기획하고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언젠가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을 타는 것이 목표라는 광주 헬핑헨즈. 지역 사회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광주 헬핑헨즈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이롭게 퍼지고 지역 사회가 강화되며,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나눔에 동참하길 기대해 본다. ■

“누가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김용호 형제

2017년 1월, 나는 몇 차례씩 하늘의 구름 위에 어떤 남자의 영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다. 아내에게 ‘우리에게 아들이 생길 것 같다’고 하자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 느낌은 계속되었고 3개월 뒤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나의 확신대로 태중의 아기는 아들이었다. 그 무렵 나는 또 다른 강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바로 아들 ‘축복이’(태명)를 위해 태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태아 보험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었지만, 영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태아 보험에 가입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다리를 절며 힘겹게 걷는 아이, 휠체어에 의지한 아이 등 여러 차례 장애아동을 보게 되면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해 12월, 마지막 초음파 검사에서 눈과 눈 사이가 멀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축복이’를 위한 가족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15일, 태명처럼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우리는 ‘민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새 생명의 탄생에 하루하루 감사히 지내던 중, 우리는 민중이가 일주일 지나도록 눈을 뜨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종합 병원을 찾은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되었다. “한쪽 눈은 완전히 볼 수가 없고요, 다른 쪽 눈도 빛을 희미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중이의 양쪽 눈은 모두 정상보다 작은 ‘소안구증’이었고, 오른쪽 눈은 검은 눈동자가 없는 ‘무안구증’까지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수도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나날이 이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슬픔이 밀려와 눈물이 났고, 눈을 감을 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뜰 수 없는 민중이가 생각나 눈물이 흘렀다. 운전 중에도, 일터에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로 기도했다. 더 큰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감독단과 부산 선교부 회장님께 연락을 취했고 페이스북에도 민중이의 이야기를 게재했다. 부산 선교부 회장님께서 모든 선교사에게 민중이를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해 주셨다. 성전 회장단과 성전 봉사자분들도 매일 민중이의 이름을 기도 명부에 기재하며 기도에 힘써주셨다. 페이스북에서는 많은 분이 위로의 말과 함께 금식과 기도를 약속해주었고, 내 글을 영문으로 번역해 공유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해외의 성도들에게도 민중이의 상황이 전달되었다. 게시글의 조회 수는 6,000건을 넘어갔으며 민중이의 소식은 전국 각 와드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톡방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퍼져 나갔다.

수많은 이의 위로와 기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와드 감독단이 집을 방문했다. 감독단과 나는 다 같이 원을 지어 무릎 꿇고 민중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신권 축복을 했다. 감독님이 기도하는 동안, 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신권 축복에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달은 순간, 슬픔으로 요동치던 내 마음은 만기 힘들 정도로 크나큰 평안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모든 슬픔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다. 기도가 끝난 후 아내에게 영적인 경험에 관해 전하자, 아내의 마음에도 깊은 평안이 깃들었다.

며칠이 지난 후 안식일이 다가왔고 나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중우 형제님에게 민중이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김 형제님은 오랫동안 저활동 회원이었지만 흔쾌히 승낙하였고 성찬식 내내 민중이를 안아 주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는 이번에도 교회에 가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교회에 참석했던 지난 일요일 오후 꿈 이야기 들려주었다. 교회에 다녀온 후 짧은 낮잠에 빠졌던 그의 꿈속에 누군가 나타났다. 꿈속의 인물은 “삼촌, 저는 민중이에요.”라며 말을 걸었다. 성장한 민중이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는 꿈속 민중이에게 왜 자신에게 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민중이는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대답했다. 민중이는 계속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덜 보일 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걱정 하시는 게 마음이 아파요. 부디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중이는 자신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잠에서 깨어났지만 성장한 민중이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꿈은 김 형제님께 의미있게 다가왔고, 이를 계기로 김 형제님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에 힘쓰며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전에 가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도 새로 소식을 접한 많은 분이 계속해서 위로의 글을 보내주신다. 민중이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했다.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어린 영혼을 위한 그 많은 기도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은 경외감과 겸손함으로 벅차 오른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눈을 열어 천사의 성역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휘장 저편의 천사뿐만 아니라 민중이를 위한 비이기적인 기도에 동참해준 그 수많은 천사들의 성역까지 말이다. '하늘의 천사와 지상의 천사의 성역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천사의 성역", 2008년 10월 연차 대회 참조) ■



민중이의 백일 잔치에서 김용호 형제와 그의 가족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8명 / 봉사 선교사: 1명



박나라 자매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김남훈 장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



김채린 자매
대전 스테이크
광양 와드
영국 리즈 선교부



도시현 자매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슬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선교부



배정일 장로
서울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안하은 자매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선교부



오정택 장로
대전 스테이크
대전1 와드
미크로네시아 광
선교부



정승현 장로
부산 스테이크
김해 와드
서울 선교부



조은비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
한국 관리본부
출판미디어서비스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제주 지방부

지방부 회장: 김병창 형제
(전임: 윤성조 형제)
제1보좌: 엄호경 형제
제2보좌: 김준배 형제

울산 지방부

지방부 회장: 정의곤 형제
(전임: 강현오 형제)
제1보좌: 강철건 형제
제2보좌: 추동수 형제
호계 지부 회장: 이채용 형제
(전임: 추동수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안산 와드 감독: 유상대 형제
(전임: 채승병 형제)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dschurchkorea/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
- 배부 센터: 080-238-8000